



6월의 기도

1. 여름으로 들어가는 초입인 6월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나 눈, 더위나 추위, 모든 날씨를 통해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2.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강건한 믿음과 힘을 더해주시어 그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3.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존경합니다. 평화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4. 저희 모두의 가정을 지켜주시어 가족들이 사랑과 화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각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저희 모두의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하나님 마음에 접붙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그의 영원한 사랑과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과 건강과 평안과 질서와 아름다움과 부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세계를 지으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그 결과 병들고 저주받은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metanoia)’, 즉 ‘마음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마귀에게서 받은 병들고 눌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접붙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가까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바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접붙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때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접붙였고 그 말씀을 좇아 행하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접붙일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2004년 해외성회

< 솔로몬제도 성회 >



① 연인원 7만여 명이 운집한 솔로몬군도 대성회 ② 2004 솔로몬군도 대성회 전경 ③ 케마케자 수상과 함께 기도하는 조용기 목사 ④ 현지 일간지 '솔로몬스타' 전면에 소개된 조용기 목사

남태평양 적도부근에 위치해 있어 역사적으로 외세의 상흔과 내전으로 갈등이 많았던 솔로몬제도에서 2004년 4월 개최된 조용기 목사 초청 솔로몬군도 대성회를 회고해보고자 한다. 당시 성회는 연인원 7만여 명이 참석해 3000여 명이 결신하는 등 변화와 치유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자 솔로몬제도 최대의 개신교 행사로 기록됐다.

2004년 4월 16일~17일 양일간 솔로몬 군도의 수도 호니아라에 있는 라손 타마 국립축구경기장은 5만여 명 밖에 안되는 수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군중들은 한국에서 온 한 복음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24시간 항해 끝에 도착한 사람들이었다. 이틀동안 라손 타마 국립 축구경기장에는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연인원 7만 여명이 운집해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윌리-윌리(willy-willy,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주변 해상에서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폭풍)같은 성령의 폭풍에 휩싸여 감격과 흥분 속에 기도하며 병 고침의 체험을 했다.

첫째 날 결신의 시간에는 1천여 명 이상이 결신했으며 수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했다. 어느 한 젊은 청년 성도는 허리를 다쳐 척추에 문제가 있었는데 조용기 목사의 신유기도 중에 갑자기 뜨거움을 느끼고 병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했다. 첫째 날에 이어 둘째 날은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과 두통과 심장병, 피부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했다.

솔로몬군도 대성회는 DCEM이 주관하고 30여 개의 교회가 연합한 솔로몬오순절연합회가 주최했다. 성회 준비위원장 로빈슨 메세 피투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을 초청한 집회가 솔로몬군도 기독교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로 기록됐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성회를 인도하기 위해 솔로몬군도에 도착한 조용기 목사는 공항에서 원주민들로부터 전통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현지 라디오



방송이 이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또한 현지에서 유일한 일간지였던 솔로몬 스타가 지면 1면과 8~9면에 걸쳐 조용기 목사를 특집으로 다뤘다. 그리고 솔로몬군도 수상관저의 초대로 당시 케마케자 수상과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솔로몬군도는 2003년 내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인 불안정적 정치 상황과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불행은 행복으로, 가난을 부요로, 질병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임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해 질 무렵이 되자 배가 고파서 기력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때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으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시험해 보려고 하셨을까요?

1. 무엇을 바라보는가?

첫째, 예수님은 빌립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게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떡을 먹어야 할 사람이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넘었습니다. 또 빌립은 자기가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그 다음 본 것은 떡 살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설혹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에 어디 가서 그 많은 떡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다음 빌립이 또 바라본 것은 시간이 늦은 것을 보았습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언제 떡을 사서 먹일 수가 있었는가? 그러므로 빌립은 모두 다 없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모자란 것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라는 제자는 똑같은 광야에 있

굶주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예수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6장 5절)

었지만 빌립과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안드레는 광야에 있었지만 광야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군중을 먹이려면 굉장한 돈이 필요하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는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해가 저물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레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거친 광야일 뿐입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이고 마음에 절망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2. 꿈과 믿음이 있는가?

둘째로,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꿈과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그릇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꿈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고함 쳐도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나는 힘이 없고 무능하고 돈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이 없는 빌립을 제치고 꿈이 있는 안드레를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꿈꾸는 사람이 기도하고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구경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것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안드레와 한 팀이 되어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 것입니다.

3.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셋째로, 예수님께서 모든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축복하심으로 수만 명이 배불리 먹어도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풍성하고 넘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빌립은 1인당 조금씩 줘도 떡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큰 꿈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의식주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만 계신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교회당에만 계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와 같은 삶이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풍성한 식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굶주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2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18)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서대문에서 목회하던 시절 대구 출신의 굉장한 인테리인 상복원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경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미국 UCLA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에서 의사로 있다가 귀국하여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기봉씨의 주치의 역할을 하면서 대학에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술을 너무 좋아하다가 그만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한국은행총재의 딸로 미인이었습니다. 불구자가 되자 의치증이 들어 가방에 큰 회칼을 가지고 다니며 날마다 부인을 헐박했습니다. 그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인이 교회에 오자 남편인 상박사도 따라서 나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 크리스마스 때 내가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설교를 하자 상박사가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내 사무실에 오더니 “조목사, 내가 정신분열증상이 생긴 것 같아, 조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한테서 태어났다고 할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자꾸나지 뭐야” 그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불편한 몸으로 교회 청소를 하면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는 것을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내가 상박사를 처음 만났던 것이 수십년전 일인데, 지금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야기만 하면 상박사가 생각납니다. “바보 같은 것 하지 말고 올바른 직장 얻어 살아,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하고 나에게 고함치던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왜 못 태어나느냐고, 그것을 증명한다고 야단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불신앙의 문제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믿지 않으면 그 머리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반박하는 데 쓰다가, 마음이 믿으면 그 똑 같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증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면 지식도 변화된



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1:21)

요셉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의 헬라어로,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즉 ‘구원자’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계시했는데, 이는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구주로 믿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 나라로 인도해 들이시는 우리의 ‘여호수아’입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